

제7회 서울환경상 시상식 축하

(2003.6.5(목) 15:00, 세종문화회관 3층 컨벤션센터)

관객들은 서울환경상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서울시장님,

심사를 맡아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

영예로운 서울환경상을 수상하시는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서울을

보다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을 시상하는 뜻 깊은 자리에서

축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매년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 개선에 기여한

서울의 시민과 기업에 포상하는 제도를 통하여

시민의 참여도를 높여 가는 한편,

맑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가려는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의 환경은 그동안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으로

말미암아 야기된, 하천오염, 지구온난화, 산업폐기물

등과 같은 환경오염 문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악화되어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환경보전 문제는 우리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92년 리우 환경선언에서
미래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단순히 환경만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이 함께 뒤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개선의 병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여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민, 기업 그리고 서울시가 함께
공동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환경오염의 피해자인 동시에
원인제공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당면한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양식·가치관·사회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친환경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저는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환경상을 시상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서울환경상은
21세기 새 서울의 환경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의 해결책을 서울시가
시민,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이끌어 냄으로써,
서울시와 시민, 그리고 기업의 3자간 파트너십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환경상은
시민의 환경개선 노력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과거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오던 틀에서 벗어나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
활동한 시민과 기업들을 발굴하고 격려함으로써
자발적인 환경개선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환경상이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있게
달성하는 순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나갈 때
서울은 지속발전 가능한 환경친화도시로 빠르게
성장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상을 수상하신
'사단법인 생명의 숲가꾸기 국민운동' 여러분,
그리고 각 부문의 수상자 여러분!
여러분이 환경에 기울인 관심과 노력들이
맑고 깨끗한 '녹색서울만들기'에
시민, 기업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시상식을 마련하는데 수고해 주신
관계자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며,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신 수상자와 가족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도 변함없이 서울의 환경보전을 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축하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